

# 아동심리학의 기독교적 조망

Christian Perspective on Child Psychology

김상윤

- I. 서론
  - II. 아동심리학의 태동
  - III. 아동심리학의 제 이론
    1. Piaget의 구조적 인지발달론의 성립
    2. 아동심리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
  - IV. 아동심리학의 윤리학적 적용
  - V. 인지적 도덕판단 발달이론의 변천
  - VI. Kohlberg이론의 대안
  - VII. 아동의 신학개념 발달
    1. 서술적 수준
    2. 조건적 수준
    3. 초월적 수준
  - VIII. 결론
- 참고문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5)

## Abstract

God loved 'first Adam' as He made him in His image. But Adam was afraid and kept himself from God after his first meeting with the serpent. In spite of that God sent His only son to us and request a new relationship. Jesus Christ who came in this world scold the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but acknowledged and received the little children.

If the first Adam who stand in front of God and a little child before Jesus all were good, we also regard little ones as good. When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saw the children shouting in the temple are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but Jesus said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Mt 21:15-16).

God didn't judgment our defaults but want to see the attitude with which we ashamed ourselves and ask to His forgiveness. Adults, however, can't realize their hypocrisy and reject the children from the way to relief. Jesus told us "their angels in heaven always see the face of my Father in heaven"(Mt 18:10) and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learned,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Mt 11:25).

We must thank to God for our fine childlike mind which are very small but remain yet in our deep heart. The truth is not far from us but in our nearest mind. Thus we have to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Mt 18:3-5). This is the only way to meet again with God our

Lord.

Traditionally and currently many child psychologists take the view point to the weakness of children's abilities compared with adult especially in cognitive domain. In this paper, however, the power of children's mind of imagination, intuition especially his need to being with God as 'first Adam'. And the values of children to restore the 'God's Image' was discussed.

## I. 서론

빠꾸기 한 마리가 뱀새 등지에 몰래 자기 알 하나를 낳고는 날아가 버린다. 빠꾸기의 알은 뱀새의 알들보다 크지만 뱀새 부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 며칠이 지나 알에서 깨어나서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털도 나지 않은 빠꾸기 새끼는 온 힘을 다해 뱀새의 알을 등지에서 밀어내어 떨어져 죽게 한다. 빠꾸기와 뱀새는 둘 다 동일한 조류에 해당되지만 타고난 본능적 지식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다르다.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모든 유기체는 각자의 고유한 본능을 지음 받았다. 인간도 빠꾸기처럼 호흡을 하고 따뜻한 피가 흐르며, 가시에 찔리면 아파하는 신경 조직망을 가졌지만 그 정신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유기체다운 속성이 아동심리학의 근원이 될 수 없음에는 누구든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명한 사실조차 현대 심리학에서는 애써 무시 당해 온 것이 현실이다.

1930년대까지 아동심리학은 아동의 발달을 설명하는 원리의 규명보다는 연령 단계별 발달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이론적 조망을 통해 제 현상을 해석하게 된 즈음에 미국 심리학의 주류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려는 행동주의 내지 환경 결정론이었다. 사실상 이러한 이론들은 인간학이나 아동심리학에 별 관심을 두지 못했다.

인간도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유기체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19세기 말엽에 나타난 Darwin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현대 아동심리학에서는 아동이 성인이 되는 과정은 아메바에서 원시인 그리고 현대인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을 그대로 답습<sup>1)</sup>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학문 영역보다도 기독교적 세계관에서의 평가와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곳이 아동심리학이라 하겠다.

비둘기가 콩을 먹기 위해 일하는 것과 인간이 밥을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유사하다 해서 그러한 유사성으로 모든 면을 같게 취급해<sup>2)</sup> 버린다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 쉽다. 어떤 유기체의 특정 기능이 다른 유기체의 동일한 기능에 비해 더 발달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람직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 유기체들은 모두 독특하게 지음 받았다. 지음 받은 유기체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생존과 적응이지만, 각 유기체들에게 바람직한 것은 그에 맞게 조물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으로서, 하나 하나가 다 독특한 것들이다. 그 중에 인간은 여러 유기체들보다 유독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의미를 찾도록 지음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적응에 목적을 두고 지음 받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들을 다스리라는 독특한 소명을 부여하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특성으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종교적 충동과 더불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성인 것이다.

진화론이나 유기체론에서 출발한 아동심리학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출발한 아동 심리학과 같을 수 없다. 진화론이나 유기체론에서 출발한 아동심리학은 무엇보다 인간을 다른 유기체처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존재로 보는 점에서 아동심리학의 가장 큰 주제인 발달이나 성장의 방향 특히

---

1) 개체 발생(ontogenesis)은 계통 발생(phylogenesis)을 반복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아동심리학 교과서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는 비둘기가 콩을 얻기 위해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  
2) 작은 예를 들자면 꼬끼리의 뇌세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벌집을 만드는 기능에 있어 작은 꿀벌보다 못한 점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그것이 정신적인 것일 수록 그 차이는 더욱 명백해진다.

최종적인 도달 목표<sup>3)</sup>가 약하다. 가치의 추구에 약했던 미국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구조주의의 물결을 타고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는 발달과정을 묘사하려던 시도가 그 한계를 깨닫게 될 무렵 post-modernism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개인의 소박하고 다양한 삶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인간을 일정한 하나의 도식적인 틀에 맞추어 나가려던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타당한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고 소박한 개인적 삶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그 세계관은 여전히 구조주의에서 범했던 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학문의 각 영역에서 이론가들이 내 놓는 이론들이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 해도, 지나고 보면 한결같이 Kuhn이 말하는 나름대로의 paradigm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Dooyeweerd(1960)가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서구를 이끌어 왔던 철학적 사유의 자율성은 아직도 인간의 진술되고 소박한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삶을 완전히 수용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어쩌면 비이론적인 태도처럼 보이는 소박한 경험은 사물을 항상 그 모든 측면의 전체적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그 근원이 되는 창조주와의 관계 없이는 불가능하다. 흔히 철학적 자기 반성은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를 절대화하는 우를 범한다. 생각하는 자아란 궁극적으로는 절대자를 향한 자아의 본유적 종교충동인 것이며, 그 자체로서는 공허한 자아가 신적 기원과 관계맺음으로서 긍정적 의미를 갖게 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Dooyeweerd는 ‘창조’, 죄로 인한 ‘타락’, 성경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이라는 성경의 중심주제야말로 기독교 철학의 공통적인 초학문적 출발점으로 보았다. 창조된 사람의 본성은 관계성에 의해 정의지워진다고 한 Bussema(1993) 역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

3) 이 점에 대한 최근의 가장 깊이 있는 논의는 아마도 Kohlberg의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창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 II. 아동심리학<sup>4)</sup>의 태동

윤리학의 목적론과 심리학의 방법론 사이에서의 교육학이 독일의 Herbart에 의해 정립되었다고 말한다면, 아동심리학은 스위스의 Piaget에 의해 생물학의 발생론과 철학의 인식론 사이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심리학이 주류를 이루던 분위기에서 아동심리학이 인정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sup>5)</sup>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이 자주 언급되고 널리 적용되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아동심리학이 교육학 분야의 요청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그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교육의 목적을 제공해 주던 윤리학이 그 규범적인 힘의 권위를 상실하게 된 데 그 원인이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 과학이 객관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치중립성을 내세우면서 이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등의 분야에 적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가치상대주의가 자리잡게 되면서 정작 필요한 윤리 분야에서는 사회규범의 혼란이라는 아노미 현상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발달의 규범을 제공

---

4) 아동심리학의 역사를 보면 1930년대를 정점으로 그 용어가 전공 영역에서는 이미 발달심리학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에는 아동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아동의 심리를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해 나갈 때나 아동의 개념을 넓게 적용시킬 때에는 발달심리학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개념을 특별히 구분짓지 않을 것이다.

5) 우리 나라에서의 전통 심리학계에서는 아동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이 인정받는 데 오랜 기간이 필요했으며, 가까운 예를 들어 계명대학교의 심리학과에는 아직(1995)도 발달심리전공자가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아동이라는 존재를 성인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이유는 발달이라는 용어 속에 어떤 가치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신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의 논의 역시 주로 이러한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할 만한 것으로 발달심리학에 기대를 거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런 배경을 보면 발달심리학은 심리학보다는 교육학에 더 친숙하고 절실한 영역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발달심리가 낮은 단계들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높은 단계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교육목적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 III. 아동심리학의 제 이론

#### 1. Piaget의 구조적 인지발달론의 성립

아동심리학의 역사에 빠뜨릴 수 없는 용어로서 교육의 대상인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 연령별 심리특성과 여러 가지 학습 능력들을 나열한 Havighurst의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아동이 몇 살이 되면 말을 할 수 있고 몇 살이 되면 걸을 수 있고 몇 학년이 되면 묵독이 음독보다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등의 지식들을 다룬 것이다. 아동의 지능에 관한 Binet의 연구<sup>6)</sup>도 이러한 아동의 학습능력을 기술한 것이다. 소위 여기까지가 아동심리학의 역사라고 한다면 발달심리학의 역사는 Piaget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Piaget는 Binet연구소에서 아동들의 지능검사 결과들을 채점하면서 연령별로 공통적으로 범하게 되는 오류의 '원인'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으로 비슷한 오류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히 동시에 해결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현상은 단순한 지식의 증가라기보다는 아동의 인지능력의 구조적 변화, 즉 발달에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을

6) 그가 만든 지능검사는 프랑스 문부성의 주문으로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1년 동안 제대로 학업을 따라 붙을 수 없는 아동들을 미리 식별해 내기 위해 만든 기억력, 어휘력, 추리능력 등의 검사가 포함된 도구로 지금까지도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우게 되었다. 말하자면 어떤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를 아동이 소유하게 되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수준이 같은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소위 구조주의적 인지발달이론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다.

Piaget는 아동들이 지능검사에서 틀린 답을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폐적 사고(autistic thought)와 방향적 사고(directed thought) 중간에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다고 했다. 자폐적 사고는 하의식적(subconscious)인 것으로 이것이 추구하는 목표와 제시한 문제들이 의식에 나타나지 않으며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과 꿈을 스스로 만든다. 진실을 입증하기보다는 원망(願望)을 만족시키고, 철저히 개별적으로 남아있고자 하며 언어와 같은 수단으로 소통될 수 없다. 아동의 심리는 사고를 검증하려는 욕구보다 즉각적 만족을 요구하므로 사고의 가장 자발적인 형태는 놀이(play), 또는 바라는 것을 성취시켜 주는 원망적 상상(wishful imaging)이 주를 이루며 진실과 환상의 구분<sup>7)</sup>이 어렵다.

그러나 Piaget는 이러한 자폐적 사고나 자기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중시하는 피동적이고 계속적이며 보상에 기초를 두는 학습보다는 인식 주체의 일상적 창조성이 사고발달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식이란 지속적인 구성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 자신의 환경을 반드시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 아동이 알고 있는 모든 대상물은 자발성의 산물이다. 그리고 유아들의 이러한 경향성을 생득적인 도식(schema)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은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물어버린 정신분석학의 입장에 비해 나름대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Piaget는 이러한 영유아의 인지구조는 가역성이 생겨나는 조작기의 아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그리하여 아주 어릴 때의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기본적 심리과정이 가장 극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가역성적 사고의 획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7) 예컨대 그레를 타고 있는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대신하여 앉은 한 소년의 그림을 보고 3-4세의 유아들은 넘어진 아이의 마음상태를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 2 아동심리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

이에 비해 정신분석학에서는 비인지적인 요소들이 강조되지만 느낌들의 흐름자체가 갖는 역동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정신에너지가 흘러온 흔적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윤곽을 찾기는 어려워도<sup>8)</sup> 훗날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Freud의 정신분석학이 Piaget의 발달이론과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이 인지적이라기 보다는 정서적인 것이라는 점이고 의식적이라기 보다는 무의식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그 연구대상은 달라도 두 사람 다 인간심리를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해석<sup>9)</sup>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Freud는 아동이 어릴 때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무의식적 경험들의 중요성을 심도있게 규명해 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개념은 Oedipus complex<sup>10)</sup>이다. 어린 시절에 순수하고 단순하지만 사악한 충동들을 가졌으며 어린이의 무력함 속에서도 가능한 것은 실행해

8) 어쩌면 그 근원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신비한 힘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9) 정신분석학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발달을 인간의 정신에너지(psycho-energy)가 부자연스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기능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지만 그가 보는 좁은 의미에서의 발달은 영유아기의 구강기(oral stage)나 항문기(anal stage) 등은 잠재기적 특성을 지나 성인기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신에너지의 역동이 장래의 건강한 기능을 결정한다고 보아 유아기의 무의식적 경험에 초점을 두는 점이 Piaget와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사실 Piaget는 인지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경험들에 대해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편이기 때문이다.

10) 그는 이러한 complex에 함축된 양가성(兩價性, Ambivalenz)이 토레미즘과 종교 일반에서도 발견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죄이며,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인간을 원죄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하였다고 본 Freud는 인간의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죄의식이 수천 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이 행위에 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있어서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근원적인 관계가 남겨놓은 풍습과 의식 및 제도의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 다음 세대들은 그 감정을 전달받는다고 주장한다.

보기도 했었다. 모든 사람들도 한결같이 어린 시절에 나쁜 때가 있었다. 이렇게 리비도(Libido)가 불안으로 변하면서 기원을 알 수 없는 끔찍한 죄책<sup>11)</sup>을 낳는다는 것이다.

Freud는 쾌락주의<sup>12)</sup>에 의해 지배받는 사고의 1차 과정을 상상적 만족의 흐름으로 보고 이는 논리적 반증이나 인과 연합에 의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며 시간적 느낌이나 혹은 외부적 사실성의 어떤 것의 지령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2차 과정, 즉 자아발달<sup>13)</sup>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Piaget의 발생적 인식론은 처음부터 논리적 구조 발달개념에 의해 합리적 사고의 구성체가 형성된다고 본 반면 Freud는 기껏하여 환경과의 접촉과정에서 개인이 구사하는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무의식적 기제를 통하여 유기체의 쾌락은 Libido와 함께 일어나며 정신 속에 있는 힘으로 쾌락의 원천인 자신에게 향해졌다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인 어머니에게로 향해진다<sup>14)</sup>는 것이다.

Freud의 자아, 초자아, 원초자아의 모형 역시 Piaget의 적응과 동화의 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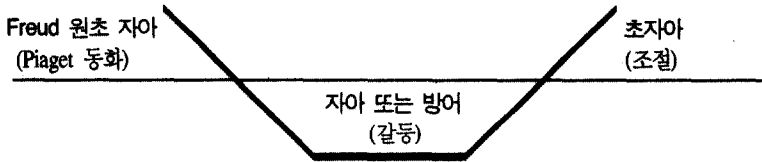
11) 이처럼 Freud는 대부분의 심리적 과정을 일종의 신경증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예슬은 히스테리에, 철학은 편집증에, 그리고 종교는 강박증에 연결지운다. 이들 간에 '발달적 관련성이 적은 점'에서는 인지발달론과, '지나치게 병적으로 본 점'에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나 '놀이하는 인간' 등의 개념과 대조를 이룬다.

12) Piaget가 아동의 발달과정을 갈등을 벗어나 균형을 향한 과정으로 본 반면, Freud는 인간발달을 쾌락의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두 이론 모두 정신발달의 목표를 합리적 발달에 두고 있지만 Freud가 볼 때 이는 계산되어진 이기주의를 목표로 하는 병적 인간상에 지나지 않는다.

13) 이 점에 대해서는 Hartmann(1958)이나 Rappaport(1960) 등에 의해 후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자아의 충동적 원천은 배고픔이나 성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개인과 외부적 자극 간의 상호작용의 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것은 White(1960)의 'competence' 개념에 유사하다고 보았다.

14) Piaget는 초기 연구에서 Freud의 1차 과정에서 2차 과정으로의 이행을 무의식적 상징주의에서 합리적인 사고으로의 발달로 보면서 유아에게는 감각적 삶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이는 연속성이 있지만 이러한 느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행동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자유롭게 흘러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생후 1년 간의 일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은 Freud의 설명대로 억압 때문이라기보다 기억력은 없지만 행동도식이 있기 때문이며 과거와 현재 간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속적인 일반적 경향으로 표현될 수 있다.



<표 1> Freud의 성격구조를 Piaget의 인지발달과정과 비교한 모형

· ( ) 속은 Piaget의 개념임 ·

Freud의 심리분석 목표는 무의식적 갈등의 의식화를 통하여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며 환자에게 행동의 비합리적 근원<sup>15)</sup>을 관찰케 하여 가장 이상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통제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심리과정이 대부분 방어기제<sup>16)</sup>에 의존한다고 보는 점이 한계라고 하겠다.

#### IV. 아동심리학의 윤리학적 적용

인지발달이론은 정신분석학의 그림자처럼 그 약점을 메워주는 긴요한 관점<sup>17)</sup>이 될 것이다. 이러한 Piaget의 구조적 인지발달적 관점이 학문적 체계

15) 예컨대 공격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억제되어 자기 자신에게 내면으로 투사되어 초자아의 벌의 과정과 양심적 환자의 과잉 죄의식으로 해결된다고 본다.

16) 자아방어기제에 관한 설명은 비록 그것이 무의식적 과정을 따른다고 해도 자아의 기능에 관련된 것으로 Freud의 딸인 Anna Freud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17) 예컨대 인지발달을 간과하고 있는 영유아기의 경험을 다룰 때 부모가 제시하는 양심을 내면화(introjection)하여 초자아로 만들어 Id를 견제하면서 사회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차츰 ego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ego의 전문기능은 현실적 판단이므로 결국 인지발달에 연결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ego가 발달하는 과정에 여전히 Id와 초자아가 영향

를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가기 전인 1932년에 「아동의 도덕판단」이라는 저서<sup>18)</sup>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소위 윤리학을 아동심리학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은 나이가 들면서 그 규칙이 또래 아동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린 아동들은 “모르고 킥 열 개 껴 넣 것을 일부러 한 개 껴 넣 것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대답을 반대로 바꾸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야기 내용이 달라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위 구조적인 특성을 잘 보여 준다.

Kohlberg은 이 저서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주목하게 된 것은 물론 아동의 도덕판단이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구조적 특성의 발달과정이 아동기에만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중학생과 어른 사이에도 어떤 구조적 차이<sup>19)</sup>가 있을 것이다. Kohlberg은 Piaget의 초기의 도덕판단 단계들을 후기의 지능발달 단계들의 때대로 삼아 성인기에까지 확장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들을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입증함으로써 학위를 받게 된 것이 1958년의 일이다. 이때의 미국은 소위 구조주의<sup>20)</sup>의 전성기로 들어갈 즈음이었다. 그런데 과학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인간성 문

---

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18) 예컨대 아동에게 간단하지만 애매한 설문들을 제시하여 그들로부터 얻은 반응들을 Durkheim의 사회학적 관점과 Piaget 자신의 개인적 관점,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제재(sanction)와 협력(cooperation)이라는 상반된 관점으로 비교하고 있다. 말하자면 아동의 발달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의 발달을 답습한다는 것이며 앞으로는 제재의 시대는 가고 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시사할 결들인 내용의 책이다. 이 책의 전반부는 Piaget가 스위스 아동들의 구슬치기를 관찰하면서 아동이 규칙개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위와 신성불가침의 판단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19) 그런데 정작 Piaget 자신은 아동심리학의 윤리학적 적용을 여기에서 그만 두고 말았다. Piaget는 그 후로 순수한 지능발달에만 전념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전 세계의 아동심리학 교과서마다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20) 1959년에는 소련에서 인공위성이 처음으로 올려져 미국 상공을 날게 되었고, 1960년대 미국 사회는 교육의 위기를 느끼고 과학혁명을 주창하게 되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지식 중심에서 구조중심으로 바꾸는 일대 변혁을 시도하게 된다.

제가 곧 이어 제기되었으며 대학가는 월남전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히피족들의 탄생, 탈 학교운동 등 인간성 회복운동이 도처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사실 여태까지만 해도 미국의 심리학계는 환경결정론이 강한 행동주의 심리학 속에 안주해 있다가 급기야 그 한계<sup>21)</sup>를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수월성의 기초로 찬양할 줄은 알았지만 그 그늘에 가려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참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간과<sup>22)</sup>하고 있었다. Kohlberg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참된 권위를 가진 도덕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회가 계속될 때 자연스럽게 겪게 될 비극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Freud와 함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민족이 가장 우수한 문화 민족이라고 자처하던 게르만 민족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유대의 지성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비극을 공격적 본능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던 Freud와는 대조적으로 낮은 수준의 도덕판단 때문이라고 믿었다. 예컨대 민족이 당한 비극은 소위 Nietzsche의 ‘힘의 철학’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철학을 가장 낮은 단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그 단계를 대변하는 철학을 대응시켜 나갔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에는 소크라테스와 당시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King목사를 대응시켰다. 그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여러 단계의 도덕판단을 거쳐 발달하여 마침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판단을 구가하게 된다고 믿었다.

21) 그 대안으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Gestalt심리학이나 Piaget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도덕판단의 발달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22) 가치상대주의 내지 무가치주의(Anomie)에 묻어 있었던 범국민적 정서는 이러한 숨어 있는 불공정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교육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미덕인지 사회악인지에 대한 혼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스크바 한 가운데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고 뉴욕 한 가운데 가장 철저한 전제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미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 V. 인지적 도덕판단 발달이론의 변천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Kohlberg은 Piaget의 인지구조적 발달단계를 도덕판단 연구에 적용시켜 발달을 '단계상의 진보적 이동'으로 보고 이 단계를 '어떤 사실에 관해 일관된 영역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가치를 규명하는 방법과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는 Piaget가 제시한 협력적 사회관계를 향한 연속적인 발달<sup>23)</sup>이기도 하다. Kohlberg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낮은 단계로 통합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상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Is)에서 점차 분화된 도덕적 원리(Ought)로 향해 간다는 통합과 분화의 원리로 발달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From Is to Ought"라는 주제는 간단한 문제<sup>24)</sup>가 아니다. 이는 Kohlberg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다. 그가 만약 이 숙제를 풀어낸다면 가치상대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든 도덕교육자들에게 큰 희망<sup>25)</sup>을 줄 수 있는 것이다. Kohlberg은 자신의 초기 이론인 여섯 단계의 실재(實在)를 입증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오지(奧地)에까지 가서 인터뷰 자료들을 수집하였던 그 열정으로 복잡한 철학의 영역<sup>26)</sup>에까지 들어서게<sup>27)</sup> 된다.

---

23) 아동이 상위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위단계의 추론이 부적절함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러한 내적 동기를 중시했다. 따라서 발달이란 외부로부터 더 복잡한 내용을 단순히 첨가시켜 가는 양적 모형이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되어 가는 하나의 계열을 따르는 것이다.

24) Durkheim(1925)은 도덕성이란 환자가 의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에 비유할 만하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권위와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착은 Durkheim의 도덕성이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권위를 제재하는 낮은 단계의 특성으로 취급하게 된 이상 무엇으로 당위성이라는 Ought를 납득시킬 수 있는가?

25) 그는 자신의 그 같은 일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만한 교육적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1981).

26) 그는 그러한 자신의 심정은 철학이라는 늑대 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뉘두리로 표현하고 있다.

27) 그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시도한 데에는 "아동이 왜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가"라는 심리학적 이유와 "왜 높은 단계가 낮은 단계보다 더 적절한가"라는 철학적 이유는 동일한 선상에서 만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왜 커닝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벌을 받을까봐”라는 단계1에 비해 “공정하지 못하므로”라는 단계2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Rest(1973)는 일련의 도덕적 진술을 자신의 용어로 재진술하게 한 다음 이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자신의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진술은 쉽게 이해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반면 자신의 것보다 한 단계 위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선호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단계보다 두 단계 이상 높은 단계의 진술에 대해서는 다시 선호도가 떨어짐을 발견할 수 있다. Keasey(1973) 역시 도덕 논의에 참여한 피험자들 역시 +1단계의 진술로 자신의 의견을 바꾸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심리학적 적절성을 보여 주는 예들<sup>28)</sup>이 될 수 있다.

Kohlberg의 말대로 지난 50여 년 간 Moore에 의해 지적된 자연주의적 오류가 윤리학에서 강하게 대두되면서 이 문제를 감히 건드리지 못해 온 것<sup>29)</sup>에 비하면 하나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으며, Kohlberg의 이러한 태도<sup>30)</sup>에 대해 Hare(1982)와 같은 철학자에 의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ohlberg 자신이 보여 준 자세, 즉 흙 때문에 손이 더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보석을 캐내겠다는 의지이다.

철학적 적절성<sup>31)</sup>을 들기 위하여 그는 여러 철학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

28) 이러한 예들을 통해 Kohlberg은 자신의 이론이 “왜 생식활동(genital stage)이 배설활동(anal stage)보다 더 나은가?”라는 윤리적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신분석학에 비하여 덜(?)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9) 적어도 Kohlberg이 보기에는 Dewey, Mead, Baldwin 등의 심리철학자들이 사실(개인의 욕구와 사회인습)에 관한 통찰과 당위(고유한 도덕적 가치)에 관한 통찰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30) Alston(1971)과 같은 철학자로부터는 “모자 속에서 토끼를 끄집어내는 것”과 같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평가받기도 하였다.

31) Kohlberg(1981)은 아동의 가역성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면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 우리에서 사회 등으로 사회적 조망(social perspective)이 확장되어 나가 소위 도덕판단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발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도덕발달은 인지구조라는 일정한 계열을 거쳐 도덕적 사실(is)에서 당위(ought)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인지구조가

다. 여기서 두 가지 원리, 즉 하나는 목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경이었으며 또 하나는 정의(justice)였다. 그러나 도덕성이 독자적인(sui generis) 것이 되기 위해 형식적 준거인 정의를 강조하게 되면서 의무를 강조한 나머지 책임<sup>32)</sup>을 소홀히 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Kant보다도 '내용에서 벗어나 형식'<sup>33)</sup>에 치우치게 되었다.

## VI. Kohlberg이론의 대안

아마도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이 가지는 결정적인 한계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계속되는 퇴행현상의 발생<sup>34)</sup>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심리학적 적절성의 준거들이 흔들리기 시작<sup>35)</sup>한 것이다. Kohlberg의 인지구조적 발달이론에서 감정 영역을 제외시킨 점이나 상상(imagination)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보완하면서 Fowler는 하나의 신앙 관점으로 종합되는 여섯 개의 기본적인 양상을 직관적, 문자적, 인습적, 반성적, 결합적 및 보편적 신앙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Kohlberg은 Fowler가 신앙의 단계와 도덕성의 단계 간의 분명한 구분을 짓지 않은 점, 즉 도덕판단과 구분짓지 않은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하면서, 보편적 도덕원리에 의해 요청되는 종교적 관점이자 '수

---

모두 발달한 상위단계는 하위단계보다 심리학적으로 더 적절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분화되고 점점 더 규범적으로 되어감으로서 도덕적으로 또한 철학적 적절성을 만족시킨다고 보았다.

32) 예를 들면 댓가없이 도움을 베푸는 이타적 행위 등을 말한다.

33) 형식적 준거를 강조하게 된 것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34) “왜 사람들은 높은 단계에서 다시 낮은 단계로 되돌아가는가? 왜 사람들은 자신의 높은 단계대로 실천하지 않는가?”의 문제들은 Kohlberg이론의 신뢰성을 위태롭게 하는 질문들인 것이다.

35)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ohlberg는 그의 이론적 틀의 기초가 되는 심리검사 도구의 준거들 가운데 구조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최종의 원리적 단계수준들의 실재성이 약한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락, 겸손, 그리고 용서'의 태도인 일곱 번째의 도덕성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 단계는 “왜 도덕적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질문은 도덕적인 것도 논리적인 토대 위에서 해결될 질문은 아니다. 단계7은 그야말로 “절망”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Kohlberg은 이를 심리학과 도덕발달 간에 병행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이 단계에서 이루는 경험은 범신론적이던 신과의 통일<sup>36)</sup>에 대한 명백한 종교적 경험으로 봄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배척하려고 했던 가치상대주의적 혼란에 빠질 여지를 남겨 두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신학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성숙한 사람일 수록 자신이 신 앞에서 불완전함을 깨닫는다는 역설적인 면이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 VII 아동의 신학개념발달

Kohlberg의 생각처럼 진정한 도덕성인 단계6이나 단계7이 그렇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어린아이들이 도덕적일 수 있다는 말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의문과 비판은 1970년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재검토<sup>37)</sup>를 요구하게 되었다. 최근에 재조명 받고 있는 아동심리학자 Baldwin(1906)은 일찍이 과학과 도덕은 발달의 종결이 아니라고 하면서 종교적, 궁극적으로는 미학적인 맥락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미학적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종교적 맥락이 윤리적 맥락을 초월하여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Kierkegaard

36) 신과의 통일이라는 묘사는 인간의 종교적 발달단계가 궁극적으로는 신과 일치한다는 관점인데, 이는 Kohlberg 자신이 시도해 온 윤리학 영역에서의 자연주의적 오류의 극복에다 그것도 인지구조적 모형으로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난제를 남겨 둔 셈이 되었다.

37) Dykstra(1980)는 Kohlberg이 Plato의 생각에 기초하여 정의를 덕의 핵심으로 보았지만 지혜, 절제, 용기, 경건됨 등이 없이는 정의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들은 서로 같지도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 예로서 ‘욕’이 변명했을 때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었음을 들었다.

와 동일함<sup>38)</sup>을 알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Kierkegaard(1843-1855)는 인간생활에 미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세 단계가 있다고 했다. 즉 첫째 단계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밖에서 바라보려고만 하지 손잡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서, 생의 통일성과 의미에 관심이 없고 의무감이 부족한 단계라고 하였다. 둘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서로 나누는 생활이 되며 진정한 선택에 의하여 도덕적 존재가 된다고 하였다. 끝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윤리적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파선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최종의 문제,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영적 고통의 경험에는 '믿음'이라는 두려운 발견이 남아 있으며 이성을 거슬러 모든 설명을 초월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 즉 절망에의 비약을 경험한다고 했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불연속적인 비약을 Kohlberg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물론 Kohlberg은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고심<sup>39)</sup>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죽음이라는 인간절대의 상황 앞에서 나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Kohlberg의 삶은 도덕발달연구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였다. 마침 이 때를 즈음하여 post-modernism 등의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의 고유한 인격의 주축이 의식에서 무의식, 즉 논리정연한 인지적 발달에서 감성의 자유로운 표출, 심지어는 자아의 해체로 그 강조점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간의 도덕성을 지배하는 유일한 구조라는 것은 더 이상 강조될 수 없고 그 대신 작고도 섬세한 수많은 상황에서의 다양한 관심들이 존중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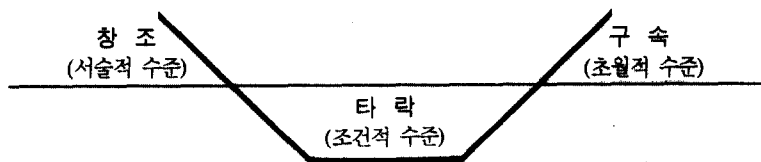
38) 이러한 설명은 Piaget(1932)의 도덕판단단계, 신앙단계에 적용한 Goldman(1965)의 생각이나 Kohlberg의 도덕판단단계를 신앙단계에 적용한 Fowler의 생각에 비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비록 객관적인 평가는 못된다 하더라도 Fowler(1981)가 시도하고 있는 도덕판단과 구분 짓지 않은 신앙에 대한 지나친 포괄적인 정의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Kohlberg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39) 1980년도 *Psychology Today*라는 정기간행물 표지에 한 사람이 일곱 번째 사다리를 세로 가졌다 세우는 만화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아마도 자살인 듯한) Kohlberg 자신의 사망은 그의 이론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를 비판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아동의 세계관의 예로 신학개념의 세 가지 수준<sup>40)</sup>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서술적 수준이다. 이는 Kierkegaard의 미적 단계에 해당되거나 그가 묘사한 부정적 측면 대신 예술가의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으며 나름대로 적절한 기능을 함으로써 다른 단계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아동은 대략 취학 전 유아들이다.

둘째는 조건적 수준이다. 이는 서술적 수준을 지나서야 가능하며 이는 Kierkegaard의 윤리적 단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Piaget의 인지구조적 이론에 기초한 Kohlberg의 도덕판단단계이론의 전체가 해당될 것이다. 이에 속하는 아동들은 대략 8세에서 11세까지이다.

셋째는 초월적 수준이다. 이것은 역시 조건적 수준을 지나서야 가능한 것으로 Kierkegaard의 종교적 단계에 해당하며 Kohlberg나 Fowler의 심리학적 내지 철학적 적절성에 기초하는 보편적 원리 그 이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이 아닌 역설적인 영역으로, 무조건적인 성령의 사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은 대략 중학생 이상이다.



<표 2>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구원의 과정을 나타낸 모형

40) 아동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물어보면 연령에 따라 그 대답이 다를 수 있다(김상윤, 1987). 먼저 5-7세의 유아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 좋은 분 등으로 생각하며 8-10세의 아동들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 등으로 생각하고, 그 연령 이상의 아동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등으로 생각한다.

## 1. 서술적 수준

Kierkegaard의 첫 번째 단계인 미적 단계에서는 이미지들이 흩어져 있으며 나머지 단계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았지만, Fowler는 이미지를 기능적인 면에서 전체 신앙단계에 모두 관련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 있다. 즉 이미지의 형성은 의식과정을 기다리거나 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나 느낌을 종합하는 점에서 개념보다 앞서며 깊은 것이라 했다. 그는 이미지의 두 가지 측면을 초월성과 퇴행성으로 구분하였다. 초기의 이미지들은 단순한 요소들의 모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Fowler의 신앙단계1은 직관적 - 투사적 신앙으로 6세에서 7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략 7세 이전의 유아들은 아직 가역성이 없어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직관, 즉 '그냥 받아들이고', 투사, 즉 '그냥 내던지는 것'이 전부이다. Fowler는 취학 전 아동들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모습들을 인과관계에 질서정연하게 맞추어 다시 재생성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는 아동의 풍부한 상상을 위하여 이미지와 이야기들의 질을 높여줄 책임이 있으며 아동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말로서든 동작으로서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Fowler가 장차 나타날 여러 단계에 비해 직관<sup>41)</sup>을 열등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인지발달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찍이 직관은 윤리학 분야에서도 중시되어 왔다. Price는 주어진 행위가 옳으나 그르나의 판단은 그 행위에 따르는 여러 결과를 고려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

41) 이 시기의 아동들이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을 우리는 '직관'이라 부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아동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석적 사고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Brunner(1963)와 같은 학자는 직관적 사고가 분석적 인지과정에 특별히 의존하지 않고도 과제 의의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 명백히 체계적인 단계를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제 사태의 포괄적인 지각에 기초하여 전개된다고 하면서 이것의 발견적인(heuristic) 면을 중시하였다.

것<sup>42)</sup>이라고 했다. 따라서 직관은 분석이나 추리에 비해 열등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아동의 직관이 오히려 성장하면서 상실<sup>43)</sup>하게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동들의 직관적인 능력은 그들의 산만한 이미지들을 대함에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며 나름대로 훌륭하게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은 그들의 도덕내용의 심각성에 대한 직관적 변별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김상윤, 1986). 즉 아동은 직관적 변별력으로 그 때 그 상황에서 내린 판단은 옳은 것이다. 그들의 도덕적 판단이 열등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준, 즉 분석적 틀에서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 2 조건적 수준

Kohlberg의 도덕판단 단계이론을 살펴볼 때 각 단계의 도덕행위에 참여하는 동기들은 그 이유는 달라도 근본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그것이 단계1의 공포, 단계2의 보상욕구, 단계3의 비난의 두려움, 단계4의 위배에 대한 죄의식, 단계5의 공동체 의식의 상실, 단계6의 자기비난 등에 대한 모면이다. 다시 말해 동기 그 자체가 도덕행위에 있어 인과관계 내지 목적에 대한 수단의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도덕성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단계2이다.

단계2의 특성<sup>44)</sup>은 각 개인 간의 교환과 분배에 있어 양적 공평성을 증시

42) 예컨대,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고 한 Kant 역시 선이란 단순하고 궁극적인 관념인 까닭에 직관할 뿐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43) Werner에 의하면 초기 아동은 생물과 무생물 간의 구별이 안되지만 예술적 창조성의 원천이 되는 相貌的 知覺(physiognomic perception)으로 불리는 사고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Piaget는 아동의 이러한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도덕판단의 구조를 확인하면서 연구자(1984)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구 대상들의 도덕판단의 질은 향상되지만 오히려 도덕적 관점이 그 원활성과 유연성에 있어서 어린 아동에 비해 경직되어감을 확인한 바 있다. 모든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즉흥적으로 시와 노래를 부리며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며 풍부한 표현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이 만든 상상의 영역에서 거침없이 산다(Collingwood, 1925).

하는 것으로, 이는 Piaget의 논리적 상호성(reciprocity)의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연령에서부터 시작된다. Oser(1980)는 그의 종교적 사고의 단계로 Fowler의 단계에 기초하여 단계2의 아동은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환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만약 신이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위한다면 그 개인은 신이 원하는 바를 행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단계3도 신을 '친구나 돌봐주는 목사'로서 보는 점에서 단계2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Kohlberg은 정의의 개념들이 단계6의 도덕적 의식으로 바뀔 때까지 발달하면서 분화되고 통합되고 보편화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반드시 참된 도덕성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복잡함의 기준을 전체해야 하는가? 그의 이러한 정의에 대한 논증은 평등(모든 이는 구매할 만큼의 최소한의 수입을 받을 자격이 있다.) 대 상호성(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그 만큼의 보상을 얻어야 한다.)의 상대적 주장들에 관한 논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호성의 정의에 대한 개념은 언제<sup>45)</sup>부터 나타나게 되는가? Fowler는 10세가 되어 신앙단계2의 아동은 단계1의 환상적 세계에서 벗어나 실제와 가식을 구분하고 사실적 요구를 요구하며 자신의 경험에 연결시켜 의미있게 진술할 수 있어 자신의 생활 속에 편재하고 있는 구조로서의 상호적 정의를 이해하게 된다<sup>46)</sup>고 했다.

44) Kohlberg는 이 단계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시장의 상거래 원칙'으로 규명한다. 즉 공정성, 상호성, 평등한 분배 등의 요소가 나타나지만 이 요소들은 언제나 물리적, 실용적 방식으로 해석된다. 소위 "내가 내 등을 긁어다오 그러면 나도 네 등을 긁어 주마."의 문제로 표현된다.

45) 일찍이 Piaget(1965)는 사실로서의 상호성(realistic reciprocity)과 이상으로서의 상호성(ideal reciprocity)을 구별하여 후자는 전자에 비해 아동의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상호존경과 도래집단 지향 등의 다른 현실에 대한 고려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Kohlberg도 단계2의 복수로서의 상호성과 단계3의 상상적인 이상으로서의 상호성을 구별하였고 Eisenberg(1979) 역시 그의 친사회적 도덕판단 연구에서 직접적 상호성과 일반적 상호성을 구분하여 전자를 쾌락주의적 사고의 범주에 두는 반면 후자를 추상적이고 내면화된 범주에 포함시켰다.

46) 연구자는 Kohlberg 이론에 입각한 종단적 자료분석(1982, 1985)과 신앙개념의 발달에 관한 자료분석(1987)을 통하여 이러한 조건적 단계가 공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

### 3. 초월적 수준

인지구조로서는 묘사하기 곤란한 영역, 그러나 그것은 Kohlberg의 단계5나 단계6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도 않은 것이며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서, 초월적, 종교적 수준이다. 이는 어린 아이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초논리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논리적이고 전논리적인 것에도 인간은 믿음<sup>47)</sup>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논리적인 것이 해결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무엇으로서 인간의 총체적이고 인격적인 노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Kohlberg의 위계적 통합이나 Fowler의 나선형 모형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 즉 뛰어넘는 무엇<sup>48)</sup>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illich는 창조적 정의<sup>49)</sup>(creative justice)를 제안한다. 그는 먼저 구약 성서의 Sedagah라는 개념은 의로움(righteousness)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격의 형식적 승인 그 이상으로 그것이 부여되는 사람을 보다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비례적 정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Tillich는 아가페(Agape)의 개념으로 설명하여 이 사랑은 듣는 것, 주는 것, 용서하는 것의 세 가지 기능을 통하여 창조적 정의를 이룬다<sup>50)</sup>고 보았다.

다.

47) 예컨대 어린 아기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나, 평소에 길을 걸을 때 왼발과 오른 발이 갈 등없이 제대로 자동적으로 기능해 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등이다.

48) Kierkegaard는 *Fear and Trembling*이라는 책에서는 윤리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비연속을 강조하였으나 *Stages on Life's Way* 및 그 후의 글에서는 초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초월이라는 문제는 이미 Fowler이론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49) Tillich는 Aristoteles의 부분적 정의를 논평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공로에 의해 주어질 때 지위가 낮거나 공로가 없으면 몹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 놓인 사람은 의욕이 상실되고 결국 태만해지는 불합리에 빠지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50) 예컨대 개인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들려줌, 다른 인격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자기 희생으로까지 나아감, 끝으로 죄인을 용서하여 은총으로 인해 의인으로 인정받음이

이는 Fowler의 단계5의 결합적 신앙이나 단계6의 보편적 신앙에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역설이다. 탈법칙적인, 더 정확히 말해서 초법칙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결코 어렵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관기에서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다만 분석적이고 조건적인 논리의 사고에 지배되기 시작할 때부터 잠시 동안 배척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수준은 미적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Kohlberg이 사례로 든 Simpson부인의 예<sup>51)</sup>에서 잘 나타나 있다.

Simpson부인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열림(openings)이라 불렀다. 이는 희생적 사랑, 즉 Agape의 경지이다. Kohlberg 자신은 이것을 자신의 단계6의 정의의 원리에 통합된 한 예로 보았지만, 차라리 초법칙적인 특성을 강조한 Tillich의 창의적 정의에 더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라는 조건적 수준과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초월적 수준의 진술 간의 관계는 통합의 관계라기보다는 대비의 관계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상호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11, 12세 이후임(김상윤, 1987)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창조적 정의는 신의 정의로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분명한 부정의로 보일 수가 있다.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역설에서 잘 나타난다.

51) “그녀의 젊은 시절에 있어 종교는 미의 추구였다. 그녀의 계속된 종교적 관심과 탐색은 ‘왜 도덕적인가?’의 물음에서 생겨난 도덕적 새로운 각성에서부터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차라리 40대 초반에 일어났던 삶의 의미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실존적 절망으로부터 왔던 것이다. 절망의 시기에 끼여든 사건과 고민은 어머니의 죽음, 동생의 정신병, 한 남자와의 안락한 관계형성의 실패 등이었다. 이 절망된 시기에 ‘동양적 관점을 배우게 된’ 인도의 가르침에 인도되었다. … 명상의 경험을 통해 윤회와 진화의 은유의 결합에 의한 우주적 혹은 영원의 조망으로부터 죽음, 고통, 불의 등의 존재를 인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가 절망이라는 실존적 위기의 해소를 동양철학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이들은 또 하나의 제한된 도덕적 방침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Kohlberg, 1985, p. 423).



## VII 결론

이러한 새로운 혼란 앞에서 어쩌면 기독교적 조망이 전보다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믿음은 또한 계속되어야 할 발달, 즉 성화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 고 한 바울의 고백(갈 2:20)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받고 성화되는 것이다. 구원은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수준을 초월하여 거저썩만한 것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굳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Piaget의 발달이론에 비추어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과부의 적은 돈이 부자의 많은 돈보다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높은 윤리적 판단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와 부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자처하는 순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지혜를 가짐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Kohlberg이 말한 것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며 그것이 여러 단계들을 통과해야만 도달하게 되는 그 무엇도 아니다. 그것은 욕이 고백한 것(요 42:5)처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직관할 수는 있는 무엇이다. 우리가 무너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쉽게 주도하실 수도 있다. 이렇진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일 뿐이며, 그 겸손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며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그것들이 아직은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어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보여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독특한 선물(진화론자들은 이를 두고 계통발생이라 부를 것이며, 소크라테스는 이미지의 유전으로, 신학자들은 원죄의 유전으로 설명하겠지만)이며, 나의 인격의 최종 도달점을 미리 예정해 놓은 유전자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세상사에 너무 마음을 쏟게 되면 정작 나의 마음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가려지고 만다. 다윗이 범죄하여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다시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심령은 크게 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슬픔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소중한 축복이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 발달의 최종 도달점이라면 이러한 과정은 확실히 아동심리학의 직선적 모형과는 다른 것으로서 불연속적이라기보다는 역설적이며, 비합리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인 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상윤, “DIT에 의한 도덕발달 수준 I과 II 간의 결정적 이행기의 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경북대학교, 1982).
- 김상윤, “Kohlberg의 도덕발달 단계이동에 대한 종단연구”, 「부산교육학연구」 2(1985), pp. 81-94.
- 김상윤, “도덕내용의 심각성에 대한 아동의 직관적 변별력”, 「교육학 연구」 제24권 1호(1986), pp. 63-74.
- 김상윤, “아동의 신학개념발달”, 「미스바」(부산: 고신대학교, 1987), pp. 130-151.
- Baldwin, J. M., *Thought and Thing*(N.Y.: Macmillan, 1906).
- Bussema, K., *Perspectives on Developmental Psychology*(in press, 1993).
- Damon, W.,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San Francisco:Hossey-Bass, 1977).
- Donald, M. J., “Moral development: Evangelical perspectives”, *Religious Education*, 제75호 2권(1980), pp. 142-151.
- Dooyeweerd, H.,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신성철(1994) “서평: 서양사상의 황혼에서”, 「통합연구」, 제8권 1호(1960), pp. 132-148.
- Durkheim, E., *Moral Education*(N.Y.: Free Press, 1961).
- Dykstra, C., “Moral Virtue or Social Reasoning”, *Religious Education*, 제75권(1980), pp. 116-128.
- Fowler, J. W., *Stages of Faith*(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1).
- Freud, S., *Totem and Taboo*(London: The Horgath Press, 1923).
- Gilligan, C.,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2).
- Goldman, R., *Religious Thinking for Childhood to Adolescence*(London: Routledge & Kagan Paul, 1965).
- Hare, R. M., *Moral Thinking*(Oxford Univ. Press, 1982).
- Hartmann, H.,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8).

- Keasey, C. B., "Experimentally induced changes in moral options and reas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제26호 (1973), pp. 30-38.
- Kohlberg, L., "From Is to Ought: How to Commit the Naturalistic Fallacy and Get Away with It In the Study of Moral Development"(1971), In L. Kohlberg,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1), pp. 101-189.
- Moore, G. E., *Ethics*(Oxford, 1912).
- Oser, F., *Toward Moral and Religious Maturity*(N. J.: Silver(1980).
- Piaget, J.(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N.Y.: Free Press, 1965).
- Rappaport, D., "The Structure of Psychoanalytic Theory", *Psychological Issues*, 제2권(1960).
- Rest, J. R., "The hierarchical nature of moral judgment: a study of patterns of comprehension and preference of moral stages", *Journal of Personality*, 제41호(1973), pp. 86-109.
- Smetana, J.,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제52호(1981), pp. 1333-1336.



■ 김상운 ■

1951년 경남 함안 출생, 부산교대 졸업, 경북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취득, 동아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 취득, 현 고신대학 아동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